2021 April 2

공모전을 나가는 20학번들이 만들어낸 결정체

전주대학교 영화방송학과

**조각**

**부제: 잃어버린 자신감을 찾아서**

**의도한 바**

* 자신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느낌 자체를 퍼즐에 대입하여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Logline**

어릴 적 트라우마가 있는 변호사가 트라우마와 비슷한 사건을 겪으며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는 이야기

**주요 인물**

**임 동호** 주인공

**심 진석** 피해자

**심 우형** 피해자의 형

**최 지수** 증인

**임 춘식**  동호의 아버지

**신 미애**  동호의 어머니

**인물의 성격**

**임 동호** – 자신감과 무력함이 내면에 자리잡아 소심하게 변하였다. 무기력하다.

**심 우형** – 동생과 사이가 좋다. 철이 빨리 들었다. 착하다. 싹싹하다.

**심 진석** – 형을 좋아한다. 착하다. 심성이 곱다. 싹싹하다. 물의를 보면 참지 못한다.

**임 춘식** – 가족을 사랑하는 이 시대의 참된 아버지상. 동호에게 힘든 내색하지 않으려 한다.

**신 미애** – 가족을 사랑한다. 아픈 내색을 보이지 않으려 한다. 동호를 끔찍이 아낀다.

관계도

**동호 – 우형** 친구사이

**동호 – 춘식** 부자지간

**동호 – 미애** 모자지간

**동호 – 진석** 변호사와 피고인

**진석 – 우형** 형제지간

**미애 – 춘식** 부부

**인물 사이의 이해관계와 대략적인 줄거리**

**과거(시나리오 이전 사건)**

동호의 어머니(신미애)가 불치병에 걸린다. 미애와 춘식은 이 사실을 동호에게는 숨긴다

어린 동호가 성폭행을 당했으나 어머니의 치료비가 급했던 아버지는 가해자와 합의를 본다.

이 사건으로 인해 동호는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었고 아버지를 돈만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

아버지는 동호에게 큰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작중 과거시점(1막)**

치료비가 계속해서 필요한 아버지는 계속해서 돈을 빌린다.

동호는 그런 아버지를 원망한다.

자신이 어릴 때 성폭행을 당하고도 아무것도 못했다는 것이 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며 변호사를 꿈꾸며 공부한다

**작중 현재시점(2막~8막)**

변호사가 된 동호, 자신의 절친했던 친구인 우형에게 도움 요청이 온다.

우형의 동생인 진석이 성폭행 누명을 썼다는 요청이었다. (2심)

성폭행에 트라우마가 있던 동호는 고민하지만, 결국 사건을 맡기로 한다.

열심히 준비를 해서 재판에 임하는 동호, 하지만 패소하고 만다.

한편 집에서는 어머니의 상태가 위독해졌고, 돈이 급해진 아버지는 동호의 사무소에 찾아온다.

동호에게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동호는 믿지 않고 아버지를 돌려보낸다.

동호는 증인의 전화를 받고, 사건의 실마리를 잡았지만

그와 동시에 어머니의 부고 소식이 들려온다.

장례식 이후 아버지에게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동호는 아버지와의 갈등을 해소한다.

진실을 알고 자신감을 찾은 동호는 진석을 설득해 3심 재판을 시작하며 영화가 끝난다.